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살펴본 역사

: '복수비극'을 중심으로

목차

1. 머리말

2. 시대상으로 알아보는 『햄릿』
   2.1 『햄릿』이 쓰일 당시 유럽의 시대상
   2.2 복수비극의 유행

3. 햄릿의 복수비극의 성격 - 세네카 비극을 중심으로
   3.1 복수와 복수비극, 그리고 세네카 비극
   3.2 세네카 비극의 영향을 받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3.3 '복수'의 측면에서의 『햄릿』 분석
   3.4 『햄릿』에서의 복수의 의의

4. 맺음말

5. 참고문헌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1. 머리말

'복수'라는 주제는 영화, 소설, 드라마, 만화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작품에서 주요 소재로 사용된다. 특히 연극에서는 복수가 주요 소재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다른 장르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극의 본질을 갈등이라고 가정해볼 때, 복수는 그 자체로 매우 연극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권선징악이라는 명확한 메시지와 극적인 갈등 구조를 지녔기에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복수극은 개인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복수뿐 아니라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 성격을 띤 복수까지 다루고 있어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기도 한다.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복수는 국가적인 문제와도 연결된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면에서 복수가 이루어진다면, 복수의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다양해지므로 문학 작품으로서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난다. 이러한 점에서 복수는 문학적인 주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정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보편적인 취향을 가진 대중을 상대로, 짧은 시간에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들어야 하는 연극에서 복수가 주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햄릿』은 '복수'를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그를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 '복수비극'의 대표적인 작품에 해당한다. 『햄릿』에서 복수가 주요 소재로 사용된 이유, 그리고 복수가 유행하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복수비극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의 소설 『햄릿』을 복수비극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2. 『햄릿』이 쓰일 당시 유럽의 시대상, 그리고 복수비극의 유행

2.1 『햄릿』이 쓰일 당시 유럽의 시대상

당시 유럽에서는 14세기 흑사병을 비롯해 말라리아, 콜레라, 홍역 등 여러 감염병의 창궐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로마 교황청의 권력은 도전받았고, 이로 인해 '인간'을 강조한 르네상스 시대로 발전하도록 만들었다.[1]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서며, 신이나 자연에서 인간으로 관심이 옮겨지는 '인본주의' 사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학에서도 관심사가 옮겨지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2]

한편, 이 당시(1601)는 엘리자베스 여왕[3]의 노쇠 기미가 보이고 그녀의 총애를 받던 에식스(Essex) 백작인 로베르토 데브뢰(Roberto Devereus, 1566-1601)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 왕권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듯이 올바른 왕권 계승이 되지 않았을 경우의 정치적 혼란상을 경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4]

『햄릿』에서 올바른 왕권 계승이 되지 않은 경우는, 클로디어스가 형을 죽인 것도 모자라

---

1) "[공존칼럼] 감염병으로 탄생한 르네상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시사주간>, 2020년 3월 23일,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57>, (2020년 4월 28일 접속).

2) "[Opinion] '햄릿'을 통해 보는 르네상스 '인본주의' [문화 전반]", <아트인사이트>, 2020년 3월 26일,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46957>, (2020년 6월 28일 접속).

3) 엘리자베스 시대의 인간상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인본주의' 사상을 토대로, 인간에게 새로운 위상을 부여하고 이성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백 년간 전승된 민간 의식을 타파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시기의 인간상은 모순된 가치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4) 신영수, 「르네상스 시대의 복수극 연구 : 복수의 방식과 명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1997, 116쪽.

형수까지 취함으로써 왕위에 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그 사실을 햄릿이 알게 되며 클로디어스를 비롯하여 햄릿, 레어티즈, 거트루드까지 죽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적 혼란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다.

2.2 복수비극의 유행

복수비극은 영국 르네상스 시대의 연극에서 가장 빈번하게 공연된 극의 유형이다. 토마스 노턴(Thomas Norton)과 토마스 색빌(Thomas Sacville)이 합작한 영국의 최초 무운시로 쓰인 세네카 풍의 비극인 고보덕(Gorboduc)이 바로 복수비극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무대에서 일어나는 극적 효과가 아닌, 후계자를 올바로 정해 놓지 못했을 경우의 국가 운명을 경고하고 정치적·도덕적 교훈을 주고자 했다.[5)]

르네상스 초기의 복수비극은 고전 복수비극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복수의 양식이 갈등이나 난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점차 갈등의 요소가 많아지고, 주인공은 복수를 이루기 전 내적·외적으로 갈등과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다양한 인물들의 복수 과정과 결과를 자세하게 묘사하며 복수비극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 극이 구성 면에서 이전 시대의 복수비극보다 발전된 점은, 다중적인 복수가 대단원에서 하나로 통일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 극의 대단원에서는 복수가 질서의 회복이라는 셰익스피어 특유의 복수 사상이 강하게 제시된다.[6)]

3. 『햄릿』의 복수비극의 성격 - 세네카 비극을 중심으로

3.1 복수와 복수비극, 그리고 세네카 비극

복수가 문학에 처음 등장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극작가였던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기원전 4년께~65년)는 복수에 대한 혐오를 담은 그리스 신화를 희곡으로 각색했다. 그의 작품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같은 영국 르네상스 시대의 복수비극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한편, 복수비극에 등장하는 권력자들의 행패나 사나운 위세는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로서 역할했다. 또한, 이런 작품에는 항상 영적 세계가 따라붙었는데, 유령이 주인공에게 과거를 알리고, 주인공이 그 원한을 풀게 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7)]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 하나인 『햄릿』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편, 세네카가 그의 비극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 분노가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분노 그 자체였다. 세네카의 복수비극에서 분노는 복수를, 복수는 비극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낸다. 사람들은 종종 비극적인 결정이 비극적인 행동을 탄생시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네카는 분노가 비극적인 결정과 행동, 즉 복수를 탄생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는 곧 비극적인 결말인 파국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복수의 완성은 비극의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세네카는 덧붙인다.[8)]

---

5) 위의 책, 24~26쪽.
6) 위의 책, 149쪽.
7) "<복수의 심리학> 3. 문학에 복수가 처음 등장한 때는 언제일까", <반니>, 2018년 2월 26일,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172490&memberNo=253010&vType=VERTICAL, (2020년 6월 1일 접속).

3.2 세네카 비극의 영향을 받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영국 르네상스 시대에는 복수비극이 한창 성행하고 있었는데, 복수비극이 나타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세네카 비극이다. 황량한 세네카의 세계는 르네상스 유럽의 모습과 여러모로 닮아 있었다. 세네카의 희곡이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세네카 비극이 출현하게 되었다.[9] 세네카 비극은 기본적으로 5막 구조와 프롤로그, 코러스[10], 혼령들과 초자연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극적 요소로는 독백과 방백, 복수, 고정적인 등장인물들, 반복적인 어구의 사용, 주인공의 성찰과 복수 지연, 폭력 장면 등이 있다.[11] 그리고 그러한 특징을 가진 세네카의 비극은 셰익스피어의 비극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특히 『햄릿』이 세네카의 비극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면들은 곳곳에 숨어있다.

첫 번째로, 로맨스, 전쟁, 코미디, 역사 등 다양한 주제들로 연극이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복수'가 주요 주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처음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은 바로 주인공 햄릿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유령으로 등장해서 그에게 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복수를 부탁한다. 그리고 햄릿은 결국 복수에 성공한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버지가 햄릿에게 죽었음을 알게 된 레어티즈는 햄릿에게 복수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레어티즈 역시 햄릿에게 복수에 성공하지만 둘은 결국 화해하는 장면을 끝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복수'라는 주요 소재는 작품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무대 위의 폭력 장면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그의 형을 독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햄릿까지 독살하려고 했던 클로디어스의 모습에서 폭력적인 특성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원래대로라면 독이 든 술잔에 담긴 술은 햄릿이 마시고 목숨을 잃었어야 할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술을 마신 사람은 햄릿이 아닌 거트루드였고 결국 그녀는 목숨을 잃게 된다. 『햄릿』에는 클로디어스 말고도 폭력적인 모습을 취한 인물이 다수 존재한다. 그 예로 자신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폴로니어스를 죽인 햄릿을 들 수 있다. 또한, 햄릿에 의해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칼에 독약을 묻힌 뒤 햄릿과 경기를 벌였던 레어티즈에게서도 폭력적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세네카 비극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장면은, 초자연적 존재인 유령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작품에 영적 세계가 투영되었다는 의미와도 같다. 이 모든 비극은 결국 죽은 선왕이 유령의 모습을 하고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면, 햄릿의 아버지인 선왕이 유령의 모습을 한 채 등장하는데, 그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햄릿이 복수를 시작한다. 또한, 왕비와 햄릿이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유령은 등장한다. 비록 왕비는 유령을 보지 못하고, 유령과 이야기하는 햄릿이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한다며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유령은 여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영적 세계 투영의 증거인 유령이 앞으로의 사

8) 이종숙, 「분노, 복수, 복수 비극의 역사」, 서양고전학연구, 45호, 2011, 194-195쪽.
9) 위의 책, 202쪽.
10) 셰익스피어 극에서의 코러스는 집단이 아닌 한 인물이 등장하여 해설자 역할을 한다. 또한, 무대 위의 배우들과 객석의 관객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기도 하며 관객에게 사건의 내용을 전달한다. (주희, 「연극코러스의 변화된 기능과 형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5쪽.)
11) 안장환, 「셰익스피어 <햄릿>의 한국공연사 연구 : 이해랑, 안민수, 기국서, 김정옥, 이윤택이 연출한 <햄릿>(1951-1996) 공연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12, 21쪽.

건들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내적인 고뇌를 토로하는 방백이나 무의식적인 심리표현 수단으로서의 독백 또한 세네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12] 햄릿은 독백을 통해 자신이 우울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선왕의 모습을 한 유령에게서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어 클로디어스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하기도 한다. 유명한 장면인 햄릿이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대사에서도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햄릿은 독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많은데, 그 예로 클로디어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음을 확신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 클로디어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버지와 클로디어스의 상황을 대조시키며 복수를 미루는 장면에서도 독백이 사용된다. 햄릿의 독백은 단순히 극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보다는, 그 장면에서 햄릿이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이처럼 햄릿의 독백은 그의 의식이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장치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의 성찰과 복수 지연을 꼽을 수 있다. 『햄릿』에서는, 숙부인 클로디어스가 자신의 형이자 햄릿의 아버지를 독살했음을 햄릿이 알아차린 후 햄릿은 복수를 결심한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성찰의 기도를 하는 클로디어스를 보며 그를 죽일 것을 미룬다. 자신의 아버지인 선왕은 독살을 당해 회개도 하지 못했는데, 클로디어스는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죽이게 되면 그가 천국이라도 갈까 봐서 하는 염려에서였다. 그래서, 자신이 그때 클로디어스를 죽인다면 육신에는 복수할 수 있지만, 영혼에는 복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더 크게 복수할 것이라 다짐하고 복수를 미룬다. 이렇게 주인공인 햄릿은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수를 지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점이 바로 세네카 비극의 영향을 받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3 '복수'의 측면에서의 『햄릿』 분석

셰익스피어 시대의 왕과 권력자들은 그들을 과시할 수단이 부족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흑사병을 포함한 다양한 전염병 등 삶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기에 피지배층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분노가 폭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13]

당시에는 왕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전염병 등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기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 또한, 경제나 기술 같은 요소들도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편함을 겪었다. 물론, 모두의 요구를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생기는 불편함이나 부당함 또한 느꼈을 것이다. 더불어, 당시에는 '계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고위층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결국, 피지배층들에게는 더 척박하고 괴로운 나날이 되었다. 고위층들은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방법만을 위주로 고민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다. 마셀러스의 대사에서도,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백성들, 즉 피지배층들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쪽으로 개혁하려는 봉기를 일으키기 힘들었다. 봉기를 일으킬 힘도 없었을뿐더러 사회는 지배층들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기에 봉기를

12) 세네카는 자신의 극 대사를 보다 아름답고 철학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 셰익스피어의 극, 특히 햄릿의 독백에서도 볼 수 있듯 셰익스피어 역시 철학적이며 격식을 갖춘 대사를 만드는데 있어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백정국 옮김, 꿈결, 2004.

일으킬 환경조차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 대상에게 직접 화를 내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해야만 했다. 무언가를 부수거나,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식으로 말이다. 『햄릿』에서는 연극 '쥐덫'을 통해 화를 풀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연극은 지배층들을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연극의 내용을 통해 피지배층의 분노를 어느 정도 줄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연극은 피지배층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배층인 햄릿 왕자의 명령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없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배층의 명령을 통해 왕을 독살하는 장면을 연기함으로써 비교적 정당하게 화를 표출할 방법이었던 것이다.

한편, 『햄릿』은 세네카 비극처럼 복수의 완성과 시체 더미로 끝나기는 하지만, 복수비극의 전제인 복수의 필요성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와해하면서 마무리된다. 세네카 비극이 황량한 세계에 갇힌 사람들의 자기주장을 담고 있다면, 햄릿의 복수비극은 인간의 자기주장에서 복수와 분노를 유토피아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14)]

『햄릿』에서 등장하는 다수의 복수가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레어티즈와 햄릿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에서 셰익스피어는, 복수가 결국에는 화합으로 변화하게 됨과 동시에, 유토피아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했다고 할 수 있다.

3.4 『햄릿』에서의 복수의 의의

『햄릿』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복수들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클로디어스에게 복수를 다짐했던 햄릿과 그런 햄릿에게 복수를 다짐했던 레어티즈가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음을 알 수 있다. 햄릿이 클로디어스를 죽인 것은 일종의 위계질서를 붕괴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클로디어스가 부당한 방법으로 왕위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한 나라의 왕이자 햄릿의 숙부이자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또한 '살인'이라는 자체가 옳지 못한 행동이기에 햄릿이 클로디어스를 죽인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는 질서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햄릿이 클로디어스를 죽임으로써, 선왕 독살과 그의 아내를 취한 클로디어스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던 질서를 되찾은 것이다. 물론 햄릿의 어리석은 행동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참혹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그러한 햄릿의 살인으로 인해 선왕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되었던 질서의 부재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레어티즈 역시 햄릿을 상대로 살인을 저질렀다. 레어티즈는 재상 폴로니어스의 아들로 지배층에 속했지만, 햄릿은 왕자였기 때문에 레어티즈의 계급보다 더 높았다. 그러므로 레어티즈가 햄릿을 향해 복수하는 것은 일종의 반란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끝으로 목숨을 잃는다. 즉, 더 높은 계층에 속한 햄릿을 향한 레어티즈의 반란 즉, 복수가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질서를 되찾은 것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복수비극의 역사를 중심으로 『햄릿』을 분석해봄으로써 특정 장면이 주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햄릿』이 쓰인 시기인 르네상스 시대는 위계질서가 중요한 요소였고,

14) 이종숙, 「분노, 복수, 복수 비극의 역사」, 214-215쪽.

클로디어스 등 여러 인물은 살인과 근친상간이라는 행위를 통해 위계질서를 붕괴했다.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던 로베르토 데브뢰의 반란에서도 드러나듯, 올바른 왕권 계승이 되지 않았을 경우의 정치적 혼란상을 경계하는 내용을 『햄릿』에서 밝히고자 했다.

본고의 4~5쪽에서는 세네카의 비극으로부터 셰익스피어가 영향을 받았음을 알아보았다.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복수'라는 주제의 사용, 폭력 장면, 유령의 등장, 방백과 독백, 주인공의 성찰과 복수 지연이 있었다. 나아가 복수의 측면에서 해당 작품을 분석해보며 복수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당시에는 삶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기에 지배층들이 피지배층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피지배층들은 연극을 통해 지배층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분노를 줄이고자 했다. 그렇게 완성된 연극은 르네상스 시대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이바지했다. 이러한 시대상과 셰익스피어의 활약 덕분에 연극의 한 종류인 '복수비극'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텍스트를 복수비극의 역사와 관련지어 읽는다면 셰익스피어가 나타내고자 했던 복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해당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현재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복수비극을 관찰한다면 작가와 장면의 의도를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백정국 옮김, 꿈결, 2004.

이종숙, 「분노, 복수, 복수 비극의 역사」, 서양고전학연구, 45호, 2011, 194-195쪽.

신영수, 「르네상스 시대의 복수극 연구 : 복수의 방식과 명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1997, 116쪽.

안장환, 「셰익스피어 <햄릿>의 한국공연사 연구 : 이해랑, 안민수, 기국서, 김정옥, 이윤택이 연출한 <햄릿>(1951-1996) 공연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21쪽.

주희, 「연극코러스의 변화된 기능과 형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5쪽.

"<복수의 심리학> 3. 문학에 복수가 처음 등장한 때는 언제일까", <반니>, 2018년 2월 26일,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172490&memberNo=253010&vType=VERTICAL>.

"[공존칼럼] 감염병으로 탄생한 르네상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시사주간>, 2020년 3월 23일,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57>.

"[Opinion] '햄릿'을 통해 보는 르네상스 '인본주의' [문화 전반]", <아트인사이트>, 2020년 3월 26일,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46957>